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영화〈코코〉: 다채로운 죽음의 무도

허수진

영화 〈코코〉는 소수민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픽사 스튜디오의 첫 번째 영화¹⁾이다. 국내에서는 누적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상(Academy Awards)의 장편 애니메이션과 주제가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코코²⁾의 증손자인 미겔 리베라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의 배경은 망자의 날(Día de los Muertos)이다. 마을 이름을 통해서도 미겔의 꿈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데, 미겔이 사는 마을은 산타 세실리아(Santa Cecilia)로, 세실리아는 음악을 수호하는 성녀이다. 그리고 영화에서 저승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찰코(Chalco)호수로 에워싸인 미스키킴(Mixquic)이며, 멕시코에서 망자의 날을 기리는 가장 유명한 마을이다.

미겔의 고조할머니는 음악을 쫓아 가족을 떠난 남편을 원망하며 남편의 부재에도 억척스럽게 삶을 꾸려나가야만 했다. 미겔은 그의 우상인 에르네스토 데 라 크루스(Ernesto de la Cruz)처럼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을 꿈꾼다. 에르네스토 데 라 크루스는 가상의 인물로, 1950년대 멕시코의 대스타였던 페드로 인판테(Pedro Infante)를 본 떠 캐릭터로 만든 것이다. 그

1) <https://www.nytimes.com/2017/11/19/movies/coco-pixar-politics.html>

2) 코코는 여자의 이름인 Socorro를 줄여 부르는 애칭이다. 또한 멕시코에서 코코는 귀신의 영혼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브라질에서는 코코가 똥을 의미하기 때문에 Viva로 번역되었다



〈코코〉의 포스터(출처: <http://www.disney.co.kr/>)

외에도 영화에는 프리다 칼로(Frida Kahlo), 엘 산토(El Santo), 마리아 펠릭스(María Félix), 혁명가인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 등 실존 인물을 반영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미겔의 가족은 자신의 꿈을 쫓아 가족을 떠난 미겔의 고조부를 원망하며 집안에서 음악을 금지하지만, 미겔은 이에 반항하여 망자의 날에 데 라 크루스를 기리는 제단에 있는 기타를 훔쳐서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미겔이 기타를 연주하려는 순간 저승으로 가게 되고, 망자의 것을 훔치면 가족의 축복을 받아야만 현세로 돌아갈 수 있는 저승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미겔은 음악을 계속하겠다는 자신을 축복해줄 수 없는 가족을 떠나 자신의 고조부라고 굳게 믿는 데 라 크루스의 축복을 찾아 떠난다.

하지만 데 라 크루스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엑토르(Héctor)라는 친구의 노래를 훔쳐 유명한 가수가 된 것이었다. 그는 엑토르가 죽어갈 때 “그건 초리소였을 거야”라고 말한다. 스페인어에서 초리소는 은어로 도둑이라는 의미를 뜻한다. 따라서 초리소는 실제로 엑토르가 상한 초리소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데 라 크루스가 노래를 훔쳤다는 도둑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미겔은 모험을 통해 엑토르가 자신의 진짜 고조부임을 알게 되고, 집안에서도 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며 미겔의 집에는 비로소 음



단테(출처: <https://www.pixar.com>)

악이 더해지게 된다.

영화의 배경에서 멕시코 문화를 찾아보면, 미겔을 졸졸 쫓아다니는 털 없는 어두운 색의 동물인 단테는 솔로(Xolo) 혹은 솔로이즈쿠인틀레(Xoloitzcuintle)라고 부르는 멕시코 고유의 개이다. 아스테카인이 사용하던 나우아틀(Náhuatl)어에서 솔로틀(Xólotl)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신이다. 아스테카인은 이 솔로가 믹틀란이라는 저승으로 인도해준다고 믿었다.

영화에서 보이는 여러 다리는 믹틀란의 아홉 층을 의미한다. 망자는 4년간에 걸쳐 믹틀란의 아홉 층을 하나씩 통과하는데, 여기에는 흑요석 칼이 날아다니는 곳도 있고, 재규어가 득실거리는 피의 강도 있다. 망자의 여행은 정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지옥과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여행하는 과정을 다룬 단테의 『신곡』에서 이름을 빗댄 이 강아지는 영화 후반에서 알레브리헤(Alebrrije)가 된다. 알레브리헤는 환상의 동물로 멕시코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오아하카(Oaxaca)에서 제작된다. 영화에서 보이는 다채로운 색깔의 알레브리헤의 형태는 멕시코의 장인인 페드로 리나레스(Pedro Linares)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페드로 리나레스가 병상에 있던 어느 날 꿈 악몽에서 숲을 걸을 때 색색의 동물이 리나레스의 앞에 나타났고, 그들 스스로 알레브리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병상에서 회복 후 리나레스는 알레브리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영화에서도 리나레스식의 알레브리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페드로 리나레스의 알레브리헤(왼쪽)와 마을에 만국기처럼 내걸린 종이 장식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 그리고 영화 곳곳을 꾸미는 종이 장식을 가리켜 스페인어로 파펠 피카도(Papel picado)라고 부른다. 종이에 구멍을 내서 모양이나 글을 써서 장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상여를 꾸밀 때 이런 종이 장식을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멕시코에서도 망자의 날에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존의 많은 영화에서 멕시코는 항상 사막을 표현하는 것 같은 노란 필터가 끼워져서 빈민층이나 노동자계층을 대표하는 나라로 나오곤 했다. 코코에서는 노란 필터가 아니라 노란 꽃으로 바뀐다. 망자의 세상으로 가거나 망자의 날에 살아있는 가족을 보러 가기 위해 건너는 길은 노란색 꽃잎으로 채워져 있다. 이 꽃은 만수국(Cempasúchil)으로 11월 2일 망자의 날을 장식하는 꽃이다. 만수국은 재단과 무덤위에 올려두는 꽃인데 저 멀리서 망자가 찾아오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망자의 땅에서 만수국은 유일한 식물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미겔과 단테, 그리고 수많은 가족이 만수국으로 수놓인 길을 건너서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을 만나러 간다. 만수국은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과 그 너머의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도, 미겔을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건네는 장치로도 쓰인다.

망자의 세상을 살펴보면 아래쪽은 아스테카 문명의 피라미드, 위쪽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있다. 망자가 항상 새로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세상이 무제한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산 자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질 때 망자는 완전한 소멸을 겪게 된다. 영화의 주제가인 〈나를 기억해줘〉(Recuérdame) 주제곡에서 영화의 주제 의식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사람은 기억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소멸한다. 이 말은 역으로 망자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다면 망자는 항상 우리의 곁을 찾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코코는 멕시코 버전의 죽음의 무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의 문화와는 달리 멕시코의 죽음의 무도는 흥겨운 음악에 모두가 즐겁게 춤을 춘다.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는 왜 그토록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멕시코의 시인인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는 죽음을 부정하는 사회는 삶 역시 부정한다고 서술했다. 죽음과 멕시코인의 관계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긴밀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가령 미국은 멕시코와 맞붙어 있지만 국경만 건너면 죽음은 할로윈에서 괴물 같거나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멕시코에서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죽음 직후 9일간 기도의식에서는 멕시코에서도 충분히 슬픔을 표현한다. 영혼이 영원의 여행을 떠나기 전 9일 간 육체 근처에 머문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멕시코에서 망자의 날이 흥겨운 이유는 어떠한 영혼도 슬픔으로 기억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죽음 이후에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망자의 날은 흥겨운 죽음의 무도로 이루어진 축제이다.

허수진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과정